

II. 지역정보하이라이트

CIS 지역

■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방관만 할 것인가

-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전략은?
- 일본과 중국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확보 전략은?

□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전략

- 러시아는 우랄 산맥 인근 서부 시베리아의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카스피해 인근 지역과 동부 시베리아에 대한 석유개발 전략을 추진 중임.
-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의 석유 매장량을 약 1,00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석유자원 개발을 통하여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유럽지역에 편향된 석유수출 구도를 동북아 및 미국 서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다시 말해서 에너지 판매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석유자원의 탐사 및 송유관 건설비용은 일본, 중국, 한국 등 향후 예상되는 원유수입국으로부터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앙가르스크 지역의 송유관 건설은 중국측이 희망하는 “앙가르스크-다킹”간의 송유관 보다는 일본측이 희망하는 “앙가르스크-나훗뜨까”간의 송유관 건설로 기울어 지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측으로 기울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향후 일본의 막강한 자본을 이용하여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기타 인근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됨.

□ 일본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확보전략

- 석유 자원에 대한 중동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일본으로서는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동부 시베리아의 송유관을 건설하여 이를 통해 공급된 원유와 사할린에서 생산원유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 또한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의 송유관 건설지원 등을 통해 “앙가르스크-나훗뜨까” 노선 결정 유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앙가르스크-나훗뜨까” 송유관 건설을 위하여 일본은 대규모 자금지원(건설비 50억불, 유전 개발비 20억불)과 추가로 80억불 규모의 대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앙가르스크-나훗뜨까” 송유관 건설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러시아와 협상 중에 있음.
- 또한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우량 유전확보를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달라칸 유전(약 9억배럴 추정)사업 참여방안을 협의 중임.
- 그러나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해묵은 “북방 4개 섬”반환문제를 일본이 또 다시 들고 나오에 따라 일본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확보전략이 주춤거리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일본의 이 지역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시베리아 에너지 확보전략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급증하는 석유수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산 석유 의존도 탈피를 위한 러시아산 석유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앙가르스크-다킹”간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여 거의 매듭 단계에 놓였었으나, 일본의 뒤늦은 참여로 당초와는 달리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일본측의 제안에 러시아측이 관심을 가지면서 아울러 러시아 정부의 석유수출선 다변화 노선채택 및 그 동안 중국측과 동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여 오던 Yukos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압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비록 러시아측이 일본측 제안인 “앙가르스크-나훗뜨까”간 송유관 건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인접한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향후 동부 개발되는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중국측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이와 같이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하여 일본이나 중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 영국의 BP사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도 비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대기업들의 관심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금년 들어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이 지역의 에너지 개발 및 확보전쟁은 국가간에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동부 시베리아 송유관은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원유 공급원으로서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개발 촉진을 더욱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문의처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고지찬 ijichanko@orgio.net)